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2년 2월 21일(월) 총 2매				
담당 부서	일자리경제과	담 당 자 • 일자리정책팀장 김상정 ☎440-4231 • 담당자 조명란 ☎440-4232				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
인천시 중기 근로자 1명당 최대 20만 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
 - 2.21.(월)부터 접수,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하는 중소기업 신청 가능 -
 -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조성 및 주거 안정 도모 기대 -

인천광역시시는 21일 인천 지역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지역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이 사업은 중소기업체가 아파트, 빌라, 원룸,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, 1명당 최고 20만 원 한도로 월 임차료의 100%까지 지원한다.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.

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근로자로, 이 중 20%는 입사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자를 포함하게 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.

신청 기간은 2.21.(월)부터 예산소진시 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

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(<http://bizok.incheon.go.kr>)에 접속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

자세한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itp.or.kr) 공고문을 참조하거나,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(032-725-3035)로 문의하면 된다.

시는 지난해 관내 중소기업 161개 사 366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으며, 이 중 신규 입사자는 122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확충에도 기여했다.

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“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”면서 “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